

## 7월 둘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구글·테마섹도 반한 인니 전자상거래 대기업 '토코피디아' (p. 1-2)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03000667>)



인도네시아, 외국기업 7곳 공장유치...일자리 웃음꽃 (p. 3-4)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0711251694029>)



코로나도 막지 못한 인도네시아의 K-Book 열풍 (p. 5-6)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7/684495/>)



알리바바, 내년 인도네시아에 세 번째 클라우드 센터 오픈 (p. 7)  
(<http://bitly.kr/qbtyKUzEOnE>)

## 구글·테마섹도 반한 인니 전자상거래 대기업 '토코피디아'

기사입력 : 2020년 07월 03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토코피디아, 설립 4년 만에 유니콘, 인니 최대 기업 성장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서도 투자 받아... 국내외 IPO 계획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IT 기업 구글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홀딩스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대기업 토코피디아(Tokopedia)를 위한 5억~10억달러 규모의 펀딩 라운드에 합류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토코피디아'(Tokopedia). [사진=블룸버그]

3일 블룸버그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토코피디아는 최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미국 IT 공룡들과 펀딩을 논의했다. 소식통들은 이중 구글과 테마섹이 "더 활발히 협상에 임했고, 논의는 수주 안에 결론날 것"이라고 알렸다.

블룸버그는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로부터 투자받은 토코피디아가 구글과 테마섹으로부터도 자금을 조달받게 되면 "주요한 동력"(a major boost)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코피디아는 비전펀드와 알리바바로부터 선택받아 설립 4년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됐다.

회사는 인도네시아 증시 기업공개(IPO)와 해외 증시 상장을 계획 중이다. 윌리엄 타누위자야 공동 창립자 및 최고경영자(CEO)는 해외 주식 상장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지난 10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토코피디아는 올해 펀딩 마지막 단계 마무리에 근접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라 미국 IT 기업들이 투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시장 성장이 부진해지면서 동남아로 투자 눈길을 돌렸다는 설명이다. 페이스북은 인도 지오 플랫폼(Jio Platforms) 지분 9.99%을 사들였으며, 회사의 모바일 메신저 사업부문 '왓츠앱'(WhatsApp)은 지난달 배달 서비스 스타트업 '고젝'(Gojek)에 투자했다.

토코피디아와 테마섹 측은 블룸버그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구글도 블룸버그가 보낸 이메일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인도네시아, 외국기업 7곳 공장유치...일자리 웃음꽃

기사입력 2020.07.07. 11:24 최종수정 2020.07.07. 11:24

LG화학·파나소닉TV 생산기지이전  
동남아 전자기기 핵심 허브로 육성  
3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경제 희소식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지속적 유치 강조



[아시아경제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LG화학을 비롯해 최근에만 7개 외국 기업의 생산공장을 유치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침체한 인도네시아 경제에 희소식"이라고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한국 LG전자와 일본 파나소닉 등 전 세계 기업 7곳이 생산시설을 자국에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장 이동을 통해 약 3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와 파나소닉 외에 태국 오디오 기기 메이커 메이룬, 타이어업체 켄다, 일본 고무 메이커 사가미와 자동차부품업체 덴소, 미국 조명제조업체 알판 등이다.

알판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25%의 수입관세를 감당할 수 없어 중국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로 공장을 이전키로 했다.

특히 파나소닉과 LG전자는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 전자기기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파나소닉은 동남아 최대 가정용 전자기기의 허브를 육성하고, LG전자는 경북 구미시의 TV 생산 라인 일부를 이전해 아시아권 TV 거점 생산기지로 육성한다고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을 대거 유치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자본 의존도가 높았는데,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해외투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전년 대비 9.2% 감소한 68억달러에 그쳤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현지 기업들은 폐업까지도 고려하는 상황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기업들의 공장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중부 자바의 바탕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투자조정청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바탕산업단지에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산업단지는 현재 450ha가 1차로 구축됐으며 완성 부지는 총 4000ha에 달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생산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공장 외에 앞으로 17개의 사업체가 추가로 인도네시아에 문을 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조정청에 따르면 17개 제조업체가 370억달러의 투자를 추가로 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11만2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에릭 토히르 국영사업부 장관은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공장에 원활한 허가 절차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도 막지 못한 인도네시아의 K-Book 열풍

입력 : 2020.07.03 17:28:20 수정 : 2020.07.03. 19:12:00

출판진흥원, 화상상담회를 통해 출판 수출길 열어



한-인도네시아 온라인 화상 상담회 진행 모습 [사진 = 피알엑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3F)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 활로가 막힌 출판계를 지원하기 위한 '한-인도네시아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15년부터 해외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해 왔다. 인도네시아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 3회째 수출상담회 개최를 추진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출입국 제한조치'에 따라 언택트(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회 형태로 전환해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 발생 이후 개최된 화상상담회 중 단일 분야, 단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바이어가 참가했으며, 3일 간 11개의 상담장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회에는 미래엔과 위즈덤하우스, 시공사, 한솔교육 등 국내 참가사 28개사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인 콤파스 그라미디어의 5개 출판 계열사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유력 출판사 20개사의 27개 분야별 유닛이 참여했다. 출판IP를 영상화하기 원하는 영화사와 스튜디오 2개사도 참여해 총 185건의 화상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기간 약 300 종의 국내 도서를 소개했고, 이 중 미래엔의 '살아남기 시리즈' 15권이 그라미디어 그룹의 Bhuana Ilmu Populer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 50종의 도서가 인도네시아어판 계약 체결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회에 참가한 인도네시아 M&C Publishing의 헬레나 헤루닝시흐 드리아타 편집장은 "사전에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한국출판사의 자료를 충분히 공유받아 검토한 후 비즈매칭이 이루어져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며 "요즘같이 기업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이런 화상 상담회가 수출·수입을 원하는 기업들에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출판진흥원은 화상상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후속 상담 지원 및 상시 화상 상담장 운영 등 앞으로 국내 출판물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글로벌-Biz 24] 알리바바, 내년 인도네시아에 세 번째 클라우드 센터 오픈

김수아 기자 입력 2020-07-04 10:30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내년 인도네시아에 세 번째 클라우드 센터를 오픈한다.

3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클라우드 센터는 2018년과 2019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지어진 데이터 센터에 이어 조성되는 것으로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회사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완전히 건설하게 될지, 공간을 임대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최근 "새로 조성될 클라우드 센터는 현지 데이터 센터들과 작업량을 나눌 수 있어 데이터 손실 관련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또한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팬데믹 위기 속에서 I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카르타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서는 4월 말부터 공식적으로 봉쇄되면서 전자상거래, 금융, 온라인 미디어, 교육 및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이러한 모든 관련 서비스는 알리바바에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다.

구글 클라우드는 6월 말 새로운 자카르타 지역을 개설하여 현지 고객에게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했으며, 아마존 웹서비스는 2022년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말레이시아 대표 레온 첸(Leon Chen)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함께 사이버보안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데이터 스크러빙 센터를 건설해 시스템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